

【학술기행】

일본의 <근현대동북아세아지역사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학회 참관기

한석정*

나와 연세대 임성모 교수는 만주학회를 대표(?)하여 2010년 12월 4, 5일 이틀간 니혼(日本)대학에서 열린 일본의 근현대동북아세아사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회에 초청되었다. 현재 일본의 나리타(成田)공항에서 도쿄의 중심으로 연결시켜주는 꽤 짧은 수단은 2010년 개통된 케이세이(京成) 특급 스카이라이너이다. 이것이 도쿄를 윤회하는 환상선(環狀線)인 야마노테(山ノ手)선의 한 지점인 닛뵈리(日暮里)역까지 침투하는 데 불과 3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간 나리타에서 도쿄 시내행은 요금상, 시간상으로 부담스런 코스였는데 스카이라이너의 등장으로 한결 쉬워졌다. 20세기 이래 아시아의, 나아가 국제적인 첨단 도시인 도쿄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다. 도심으로의 쾌속 입성은 마치 16세기말 일본의 강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천하 통일 직후 교토의 혼노지(本能寺)에서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측근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임지인 쉼고쿠(中國)에서 최단시간에 귀임하는 느낌이다. 그는 초특급으로 돌아와 잔류세력을 규합,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멀리 사카이(酒井)의 영지를 돌다 소식을 듣고 산과 바다를 날아서 달려 왔지만 뒤늦게 귀향, 세력을 정비한 토쿠카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 비해 토요토미의 순발력은 천하를 권 요인이 되었다.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도심을 빨리 쥐어야할 순간이 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소장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소장이 얼른 서울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듯. 일본 칸사이공항에서 오사카, 교토의 중심까지, 홍콩국제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에서 그 도심까지도 특급 전철들이 탄환처럼 달린다. 이에 비해 ‘관광한국’을 외치는 우리 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길은 세계적 수준의 교통혼잡으로 머물고 험하다. 재작년 부산의 국제영화제에 참가한, 마카로니 웨스턴의 음악으로 유명한 이태리 작곡가인 엔니오 모리코네는 김해공항에서 해운대 숙소까지 두어 시간 트래픽에 시달린 뒷날 주최측의 무성의, 불친절을 핑계로 영화제 기간 중에 떠나버렸다. 이 사건은 영화제의 체면을 심하게 구겼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이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쾌속 전철의 건설 없이 영화제고, 학회고, 관광사업이고 다 힘들다.

관광 자원의 요소는 천혜의 자연, 기억에 남는 향토음식, 그리고 역사(진짜이든 그럴듯한 것이든)이다. 나는 학술행사에 참석하더라도 이 세 요소를 찾아 점수를 매긴다(중동의 석유재벌이라면 밤의 요소를 추가하겠지만). 내가 묵을 숙소는 도쿄의 오차노미즈(御茶ノ水)역 근처에 있었다. 이 지역 이름은 예전부터 도쿄에 올 때마다 내가 신기하게 여긴 대상이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찻물이다. 에도(江戸) 시절 인근 간다(神田) 강의 물을 떠서 쇼군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옆에 그리로 연결되는 괜찮은 물줄기가 있다. 인근에 메이지대학, 동경의치과대학, 오차노미즈대학과 세계 최대의 간다 현책방 거리 등 교육 관련 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오차노미즈 대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찻물 대학이 되어버리니 묘한 생각이 든다. 신선한 이름대로 이 대학은 명성을 지닌 여자대학이다. 한국의 성신여대 정도라 할까?

걸어서 10분거리의 인근 아키하바라(秋葉原)역은 야마노테 선의 교통요지인데 깨끗하게 단장된 상가로 덮혀 있다. 내가 본 일본 전철역 중에서 가장 번쩍번쩍한 곳 중의 하나이다. 부근 ‘전기의 거리’는 서울의 세운상가와

비교될 수 없는 큰 규모의 전기제품 단지이다(하드 웨어 방면이니 단지의 장래가 그리 밝다고 할 수 없지만). 얼마 안가서 스키와 스노우보드, 악기 상가로 특화된 거리가 있다. 쇼군이 마신 차물은 교육과 예체능 방면으로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그런데 바로 이 역에서 2년전 ‘문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광인 하나가 트럭을 미친 듯이 몰아 행인들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에게나 칼을 휘둘러 17명에 상해를 입힌(그 중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역 구내를 걸자니 피해자들이 뿌린 핏자국 위를 밟는 기분이 다. 그렇지만 옛 일이다. 부근 찾집과 상가는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중국, 타이완의 학자들도 초청되었다. 창춘 소재 위황궁박물관 연구원 리 마오지에(李茂傑), 타이완 국립중앙연구원 대만사연구소장 쉬취에(許雪姬)씨가 그들이다. 쉬 선생은 수년전 동국대 인문학연구소 주최 만주관련 학회에 발표차 왔는데 내가 그의 토론을 맡은 적이 있다. 주최측은 우리들의 항공, 숙박, 발표비 등을 성의 있게 마련, 나름대로 20주년 기념학회의 준비를 많이 한 셈이다. 형편이 어려운 우리 만주학회가 그간 일본학자들을 주로 자신의 항공료 부담으로 초청했던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든다.

도착 첫날 오후 6시반 저녁식사 초대를 위해 누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안내원 1명 정도가 오겠지 했는데 웬걸 이 연구회의 원로학자들이 대거 로비에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이자 동경경제대학 이사장인 무라카미 카츠히코(村上勝彦), 총무 마쓰시게 미쓰히로(松重充浩)를 포함, 동경외대의 아시아 아프리카연구소장 나카미 타츠오(中見立夫), 히토츠바시대학의 에나츠 요시키(江夏由樹), 릿츠메이칸대학 국제지역연구소장 마쓰노 슈지(松野周治) 교수 등이 자리에서 우- 일어나 명함을 차례로 주며 인사를 청하니 송구스러웠다. 무라카미 선생은 일본의 식민지 경제사 분야에서, 나카미 선생은 몽골연구의 권위자이다. 이 연구회의 원래 핵심이 경제사이나 만주, 몽골, 러시아 등 엄청 넓은 범위의 연구자들을 망라하고 있다. 매년 잡지를 내는데

최근 것이 22집이다.

특히 나카미 선생의 외몽고 독립 배경에 관한 논문은 내가 대학원 시절 읽어보았으므로 아주 반가웠다. 그 글은 신해혁명 뒤 중국의 새 공화정이 한족 중심의 내셔널리즘을 표방하자, 과거 청조에 (수평적 연맹 개념으로) 연합했던 몽골인들이 탈퇴, 외몽고를 건설했다는, 혹은 한족이 내세우는 ‘중국’(Middle kingdom)이라는 개념은 몽골인들에게 의미가 없었다는 내용의 뛰어난 논문으로 도쿄대의 에토 신키치가 편집한 책에 수록되어 있었다. 나카미 선생은 탁월한 명성을 자랑하는 프린스턴대학 고등연구원에 초대된 적이 있었고 아직까지 여러 분야로 종횡무진 연구를 벌이는 왕성한 학구열을 자랑한다. 학회 기간 중 모든 토픽에 논평을 띄우는 만물박사였다. 『만주연구』 9집에 「지역개념의 정치성」이라는 좋은 논문을 기고하는 등 만주학회에 대한 애정도 깊다. 그의 부인 나카미 마리 교수가 해방전 일본의 유명한 친한 예술가인 야나기 무네요시의 평전을 썼는데 한국에서 『미학적 야나키스트 야나기 무네요시 평전』(2005, 효령)으로 번역되었다. 이들을 포함, 장쭈어린(張作霖) 연구자 니시무라 시게오(西村成雄), 만주국 경제사의 권위자 야마모토 유조(山本有造) 등이 이 연구회를 이끌어왔다. 이 원로들은 연구회의 업적들을 모아 근년 만주에 관한 야심작, 『근대중국동북지역사연구의 신시각』(2005, 山川出版社)을 내었다. 연구회의 허리 부분을 맡은 키시 토시히코(貴志俊彦(교토대)는 나의 오랜 벗이다. 키시와 마쓰시게 두 사람은 수년전 안동대학에서 개최된 만주학회에 초대되어 발표했고 늘 자신의 논저와 연구회의 잡지를 부쳐준다.

이들을 따라 숙소 근처의 술집에 가니 내용상 중국풍이다. 이들의 전공 탓인지 혹은 중국식이 여럿이서 가장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다. 저장(浙江)성 출신의 요리사가 일본화된 중국요리를 여럿 내어온다. 그러나 메뉴는 국제적이었다. 요즘 어디에서든 음식은 글로벌로 간

다. 우리는 일본의 나마 빠루(생맥주), 오키나와 소주 아와모리(泡盛), 중국의 샤오썩(紹興) 등으로 학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대취했다. 연령적으로 그리고 연구력 상으로 차이나는 원로 학자들을 혼자 상대하러니 부담스러웠지만 나는 어딜 가든 늘 만주학회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굳세게 버텼다. 우리의 토틍은 전공을 따라 만주, 몽골, 러시아, 남북한 대치상태와 미국, 중국 등으로 크게 펼쳐졌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 나의 은사인 두아라 교수(옛 시카고대)와 친면이 있었다. 세상은 좁다. 이에 덧붙여 나는 에나쓰 교수와 동명이인인 옛 한신 타이거즈의 명투수 에나쓰를 시작으로 에나쓰의 콤비였던 포수 타부치 등 70년대 일본 프로야구 스타들, 특히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선발 9명의 타순을 줄줄 꿰어 이들을 매료시켰다. 술자리가 끝나자 일본식 더치 페이(Dutch pay)로 마감했다. 대학 이사장도 술값의 N분의 1을 내는, 편리하나 나에게 덜 익숙한 지불방식이다.

다음날 우리 외국인 참석자들은 내가 2005년 1년간 지냈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日文研, 니치분켄)의 여성 연구원인 친절한 오즈 상의 안내를 받아 학회장으로 향했다. 칸사이 출신인지라 오즈 상에게도 도쿄 지하철은 난 코스였다. 우리는 글로벌 시티의 지하에서 이곳저곳을 갈아타며 헤매는 원정을 벌였다. 그러나 마침내 지하철 역을 빠져 나와 니혼대 문리학부 캠프스로 가는 길은 조용하고 아담하니 무슨 올레길 같았다. 일본 도심의 내부는 조용하다. 교토의 경우, 도심에 눈이 있어 어린이들이 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자란다. 우리 발표자들은 학회장 바로 옆 방에서 원로교수들과 함께 정갈한 도시락을 먹고 학회 간부인 쓰카세 스스무(塚瀬進) 교수로부터 순서에 대해 브리핑을 들었다. 진행이 매우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를 뺏뺏 밀고 등글게 생긴 쓰카세 교수는 만주학회의 초청으로 수년전 육사에 와서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연구회의 여러 멤버들이 만주학회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 사학계에 잘

알려진 코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 교수와 만주 자료의 권위자인 이무라 테츠오(井村哲郎) 교수도 최근 만주학회에서 발표했다. 돌쟁날 전체 토론을 맡은 아라라기 신조(蘭 信三) 교수는 지난 9월 연세대의 만주학회에서 만주의 인구이동에 관해 발표했는데 국제적인 품격을 지닌 젠틀맨이다. 그는 최근 일본 과학재단의 장기 대형 과제, 「일본제국 붕괴 후의 인구이동과 사회통합에 관한 국제사회학적 연구」를 책임, 종료했다. 발표장으로 들어가니 원로에서 소장학자까지 여러 연령을 아울러 큰 강연장을 채우고 있었다. 누가 반색을 하며 나를 맞는데 그는 2004년 만주학회(동아대 개최)에서 발표한 야마모토 유조(당시 교토대 인문연구소장) 교수이다. 그 이후 내가 니치분켄에 체류할 때 몇 번 왕래가 있었고, 2006년 1월 일본 경제사학회에서 그의 책인 『만주국경제사연구』를 논할 때 내가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교토대 은퇴후 추부(中部)대학으로 옮겼다가 곧 은퇴하는 68세의 노학자이나 아직도 정정하다. 그의 선배격인 70대의 몇 학자들도 이들의 학회와 뒷풀이에 참가했다. 어제 만난 원로학자들은 자신들의 저작을 몽통 들고 와서 안겼다. 고맙지만 미안한 생각도 든다. 나는 그만큼의 저작물이 없다.

나는 학회 첫 발표를 맡아 「한반도에서의 만주의 기억」을 논했다. 임 교수는 돌쟁 날 세 명의 발표를 듣고 논평하는 골치아픈 역을 맡았으나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나의 통역을 맡은 니혼대 고고학과의 야마모토 타카후미(山本孝文) 교수는 부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탁월한 한국어 실력의 소유자였다. 보통 그 정도 유창한 실력이면 부인이 한국인이다. 그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흰칠한 키의 호남이었다. 백제계 후손이 틀림없다. 중국의 리마오지에 선생은 동북의 일본침략사에 관한 자료와 출판물에 대해, 타이완의 쉬 선생은 만주에서 활동한 타이완사람들에 관한 것을 소개했다. 쉬 선생의 발표는 자신의 저서를 요약한 것으로 예전 동국대에서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첫날 발표 뒤 파티에는 참석자 수십명이 모여 20주년을 축하했

다. 연구회의 멤버들 모두 그 보람을 느낀 듯 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둘쨌 날 키시 교수의 발표는 포스터, 비주얼, 미디어 등 만주국 선전자료에 관한 그의 최근작에 덧붙여 음악방면으로도 진도가 나 있었다. 이들간의 학회 상당 부분은 소장 교수들이 말아 20세기 초 아시아에 세운 러시아철도의 영향, 몽골공화국 초기 의회 사정, 국공내전 중의 중소협력, 러시아인에게 비친 북미 이미지의 만주, 시베리아 등 흥미로운 토픽들에 관해 발표했다. 전체토론에서 아라라기 교수는 향후 만주의 계층문제, 즉 이주 조선인들의 자제, 즉 초중등교육을 이수, 만주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상향 이동한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국가 역사를 넘어가는 지역사의 도전, 최소 6개국에 펼쳐져 있는 만주연구의 국제화, 일본의 연구회 창립 20주년과 더불어 막 창립 10년을 넘은 우리 만주학회의 의미,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갖는 만주연구의 유리함 등을 짚어보았다. 꽤 유익한 논평이었다.

이 학회 참석의 큰 의의는 원로교수들과의 교류 뿐 아니라 차세대 학자들과의 만남이었다. 만족사(滿族史)연구회, 전후(戰後) 만주사연구회 등을 이끌고 있는 여러 소장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을 들고 와 인사를 청하여 가방이 무거울 정도가 되었다. 만주학회 멤버이며 예전 옥고를 기고한 조선족 학자 허수동(許壽童) 교수(하이난따오 대학)의 조카인 최학송(崔學松) 선생도 일부러 찾아왔는데 그는 내년 봄 일본에서 전임교수로 부임할 것이라 했다. 조선족 학자들을 포함해서 일본 차세대 학자들은 만주학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가방이 아니라 어깨가 무거워졌다. 여러 소장학자들은 근래 야스토미 아유무(安富歩) 교수(도쿄대. 야마모토 유조의 교토대 제자로 만주 금융에 관한 역작의 저자)가 편집, 출판한 『만주의 성립』(나고야대학 출판회, 2009)에 글들을 실었다. 그 중에는 수년전 안동의 만주학회에서 만

주 삼림의 황폐를 발표한 나가이 리사(永井リサ) 선생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만주 삼림의 소진과 근대 공간의 형성을 다룬 일본 학계의 수확이다. 드넓은 지역과 시대를 맡은 젊은 세대가 착실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귀국하는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며 별별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호텔 바로 앞 큰 공사장 안에서 인부들이 음악에 맞추어 체조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무도훈련 같은 만주국의 건국체조보다 유연한, 내가 어릴 적 배웠던 재건체조와 닮은, 아마 1930년대 일본 라디오체조에서 유래된 듯한 것을 질서정연하게 행하고 있었다. 모두 안전모와 정복을 착용하고 몇 줄로 정렬을 한 채 현장감독의 연설을 듣고, 일부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각자의 세밀한 공사현장으로 갔다. 불도저, 레미콘 차량들도 따라 움직였다. 마치 전투가 벌어지는 날 군마와 대포가 움직이듯 했다. 공사장과 바깥 인도, 차도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튀는 정복을 입은 특별조가 공사장 밖에서 행인과 차량에 대한 안내, 제지를 맡고 있다. 안전사고를 대단하게 예방하고 있었다. 공사장 안 4층짜리 임시 숙소 위에 내건 “지도에 남는 위업”이라는 구호는 대단했다. 이들의 집단 작업을 보자니 인부라고 부르기가 민망하고, 단결된 장병이나, 엘리트 회사직원들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본경제가 긴 불황의 터널을 아직 헤쳐 나오지 못했다고 하나 이 순간 그 저력을 느꼈다. 그러나 학문의 저력은 더 크게 다가왔다. 우리는 만주 넘어 러시아, 몽골 등으로 어떻게 연구를 넓힐 수 있을까? 차세대는 어떻게 양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은퇴 후 70, 80대에도 왕성한 연구를 할 수 있을까?